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할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 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 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 교회를 위한 기도

- 한 기홍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재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아론과 훔 중보기도 용사 및 목자 부흥의 밤(1/20)
  - 신년축복성회(1/22~25, 강사: 방재길 목사, 세계로 방주교회)
  - 공동의회 및 부서장 회의(2/1)
  - 교역자 및 그룹장 모임(2/3)
  - 성도양육과정 시작(2/11)

가정교회 보고서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할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정교회 예배안 2026. 1. 18

## 1월 셋째 주: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속 받고 누리는 새해가 되자.(여호수아14:6-15)

### ■ Welcome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과 찬양을 나누어 봅시다.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받은 것 중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 본문: 여호수아14:6-15

### ■ 서론

우리 교회는 2026년에도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계속 감당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던 과정과 유사하다. 가나안 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 성 정복이다. 여리고 성은 공격 무기도, 공격 전술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원리를 보게 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갈렙은 특별한 인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상속받아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젊은 날에 품었던 믿음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잊지 않았고, 마침내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았다.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을 배우도록 하자.

### ■ 관찰 질문: 어떻게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속받고 누릴 수 있겠는가?

### 해답 1.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라

(12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청구하고 있다. 이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합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수 14: 9)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졸았을 때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갈렙의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상급으로 주신 약속이였다. 갈렙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졸았기 때문”이다. 그는 10명의 가나안 정탐꾼이 불신의 말을 하였을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45년 이상 기다렸다. 그리고 갈렙은 그 말씀을 너무나 믿었기에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행을 청구한 것이다. 우리도 재정이든, 문제 해결이든, 치유와 회복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기도로 말하고, 삶으로 청구해야 한다.

## ✿ 적용 질문 1

- 1) 지금 내 삶에서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며 말과 행동으로 옮겨야 할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 2)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주장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 (올해 나는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있는가?)

## 해답 2.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12절)

(수 14:11)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막상 그가 요구한 땅은 헤브론 산지이다. 그곳은 거칠고 척박한 땅이며 고대 거인족인 네피림의 후예들인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였다. 이는 갈렙이 헤브론을 청구한 것이 개인적 욕심이나 이기적 탐욕이 아니었음을 드러낸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갈렙의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과 헌신, 믿음의 선언이었다.

(수 14:12)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는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과 같다.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핍박과 위협, 수많은 역경이 있을 것도 다 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단 한 가지 약속을 주셨다. “제자들은 이 약속 하나님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흩어져 당시 알려진 세계 전역에 복음을 전했고, 수세기 안에 복음은 온 세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합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우리 은혜교회의 GMI 사역도 이와 같다. 마태복음 28:19 절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었다. 평범한 이민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 나갔다. 처음에는 선교 경험도, 지식도, 재정도 없었다. 그러나 순종하여 나가자 주님은 약속대로 함께 하셨고, 친히 역사하셨다. 과거에 큰 일을 이루신 주님이,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 ✿ 적용 질문 2

- 1) 지금 나에게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피하고 있는 ‘헤브론 산지’는 무엇입니까?(두려움, 부족함, 거절당할 가능성, 현신의 대가 등 때문에)
- 2)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약속’ 하나님으로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교, 전도, 섬김, 봉사 등)

## 해답 3.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라

(수 14:13~14)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4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졸았음이며”

갈렙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에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환경도 그대로이고, 상황의 변화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축복의 기도뿐이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축복을 받고 머물지 않고 곧바로 나아갔다.

(수 15:14-15)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은 순종이고 순종이 시작되면, 역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쟁터에 들어갈 때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때는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이다.

베드로는 “이리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걷기 시작했다. 상식과 경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갈렙은 이러한 믿음으로 마침내 꿈을 이루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도 갈렙처럼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복을 상속받고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겠다.

## ✿ 적용 질문 3

- 1)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고백을 하며 실제 도전해 보고 싶은 영역은 무엇입니까?
- 2) 올해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한 믿음의 결단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합시다.(목상, 통독, 성경공부, 교회 양육과정-2/11 시작됨)